

2019년 3월 24일

시편 2편(새번역)

- 1 어찌하여 못 나라가 술렁거리며,
어찌하여 못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?
- 2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,
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,
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
- 3 "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.
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" 하는가?
- 4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.
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.
- 5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,
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
- 6 "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'나의 왕'을 세웠다" 하신다.
- 7 "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.
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'너는 내 아들,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.
- 8 내게 청하여라. 못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.
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.
- 9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,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" 하셨다."
- 10 그러므로 이제, 왕들아, 지혜롭게 행동하여라.
세상의 통치자들아,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.
- 11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,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.
-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.
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,
너희가,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.
그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.
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.

시편은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
인격 안에서
머리와 지체들에 의해
바쳐지는 기도이며
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
우리는 그 지체들이다.

말할 나위도 없이
그분의 목소리는 곧 우리의 목소리이며
우리의 목소리는 곧 그분의 목소리이다.

그러므로
우리는 시편에 귀를 기울이면서
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
들어야 한다.

- 성 어거스틴(354-430)

잠자리에 들기 전에
 끝기도로
시편 한 편을 암송하면서
깊이 생각에 잠기는 것은
 참으로 평화스럽고
 좋은 것이다.
 더욱이
시편을 암송해 나가다가
 마음에 깊이
와닿는 구절이 있으면
 그곳에
잠시 머물러 깊은 묵상에
 들어가면 좋다.
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
 또 어디 있겠는가?

- 토마스 머튼(1915-68)